

다니엘의 책 - 번호 179

한밤중의 외침과 로마의 예언적 역할: 다니엘서에서 말세를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4-09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거룩한 지대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사만 사천을 위한 한밤중의 외침을 나타내는 구절들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은 또한 기호로 들어 올려진 자들에게 임하는 인침을 밝혀 준다. 이것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의 부분이며, '때가 가까우니라' 할 때 풀려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다니엘의 표현을 나타낸다. 이는 16절에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바로 직전이다.

11장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전을 확립하는 것은 로마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11절부터 15절을 살펴 나가면서 로마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고', 너희가 이사야 7장 8절과 9절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다.

우리야 스미스는 그의 저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하나의 예언적 규칙을 언급한다. 그 규칙은 예언적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기" 전에는 예언 가운데서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그가 이 규칙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이 예언의 증언 속에 도입되는 것과 관련하여서이다.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토록 긴밀히 연결되어, 거룩한 역사 기록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나라들이 예언에서 주목될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것은 해석의 명백한 원칙이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46.

스미스는 적어도 또 세 차례 그 규칙을 다루며, 그 세 경우 모두에서 유대인들의 "동맹"을 지목하지만, 그 가운데 한 곳에서는 그 동맹의 성취 시점을 기원전 162년으로 비정하는 반면, 나머지 두 곳의 언급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동맹"의 성취를 기원전 161년으로 비정하는 현대 역사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지상의 정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기 전에는 예언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로마는 주전 161년에 체결된 유명한 유대 동맹에 의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연결되게 되었다. 1 Maccabees 8; Josephus's Antiquities, book 12, chapter 10, section 6; Prideaux, Vol. II, page 166. 그러나 이보다 7년 전, 곧 주전 168년에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정복하여 그 나라를 자기 제국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로마는, 염소의 정복된 마케도니아 뿔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 예언 속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지자에게 염소의 뿔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였으며, 또는 이 예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175.

그러나 스미스는 또한 그것이 기원전 162년이었다고 말한다.

“그 동일한 세력이 또한 성지에 서서 그것을 삼키게 되어 있었다. 로마는 기원전 162년에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연결되었으며, 그때부터 예언적 연대기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정복에 의하여 유대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한 것은 기원전 63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59.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세 번째로 언급할 때 다시 기원전 161년이라고 말한다.

제국의 세속적 사건들을 따라 우리를 칠십 이레의 끝까지 이끌어 내려온 후에, 선지자는 23절에서 우리를 주전 161년, 곧 유대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관련을 맺게 되었던 시대로 다시 데려간다.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이후 사건들의 직접적인 계열을 따라 교회의 최종적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내려간다. 유대인들은 시리아 왕들에게 심히 압제를 당하였으므로, 로마인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들과 “우호와 동맹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 로마에 사절단을 보냈다. 1 Maccabees 8; Prideaux, II, 234; Josephus's Antiquities, book 12, chapter 10, section 6.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은 말로 작성된 칙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

'유대 민족과의 원조와 우호 동맹에 관한 로마 원로원의 결의.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들 가운데 누구도 유대 민족과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곡물이나 배, 돈을 보내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돕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이 가해질 경우, 로마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울 것이다. 또 로마인들에게 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원조 동맹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고자 한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의 공동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든 추가는 효력을 가진다.' '이 결의는,' 요세푸스는 말한다, '유대 민족의 대제사장이 유대였고 그의 형제 시몬이 군대의 장군이었을 때, 요한의 아들 에우폴레모스와 엘르아살의 아들 야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맺은 첫 번째 동맹이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71쪽.

스미스가 왜 기원전 162년을 인용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며, 다만 그것이 오타였다고 가정할 뿐이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그가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거룩한 역사의 기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 나라를 언급할 필요가 생길 때 우리는 예언에서 그 나라들이 주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의 명백한 규칙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그가 두는 강조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스미스는 그 규칙을 강조하면서, 23절의 '동맹'에서 기원전 161년에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었다고 밝히지만, 로마가 예언적 서술에 처음 도입된 시점은 기원전 200년으로, 기원전 161년보다 39년 앞선다고도 지적한다.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 문자 그대로, 뉴턴 주교의 말로는 '네 백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멀리 티베르 강변에서 한 왕국이 야심찬 계획과 음흉한 계략으로 스스로의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고 약했으나, 놀라운 속도로 힘과 기세를 불려 이곳저곳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어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 군사적 무력의 기세를 가늠하다가, 마침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자 지상의 열국 가운데서 대담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무적의 손으로 그들의 정세의 키를

움켜쥐었다. 이때부터 역사의 장에 로마라는 이름이 올라섰고,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정세를 주도할 운명을 지니며, 세상 끝까지 열국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로마가 말하였고, 그리하여 시리아와 마케도니아는 그들의 꿈의 양상 위에 변화가 닥쳐오고 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어린 왕을 위하여 개입하였으니, 이는 그가 안티오크스와 빌립이 꾀한 멸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원전 200년의 일이었으며, 시리아와 이집트의 정사에 대한 로마인들의 최초의 중요한 간섭들 가운데 하나였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56.

로마는 기원전 200년에 예언적 서사에 처음 도입되며, 그 도입을 말하는 14절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로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절이 환상을 성립시키는 상징으로서 로마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그러한 예언의 규칙을 강조해 놓고도, 로마의 권세가 '도입'된 시점을 기원전 200년으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기원전 161년을 인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내가 굳이 규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스미스가 정의한 그 규칙이 타당한가 아닌가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타당하다면, 나는 14절이 기원전 161년의 동맹 이전에 일어난 유대인들과 관련된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는 13절부터 15절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교황 로마가 예언적 역사에 개입하는 한 역사를 지목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미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예수님은 항상 처음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이방 로마가 역사에 등장한 기원전 200년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스미스의 원칙에 동의한다. 그가 기원전 200년에 로마와 유대인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찾지 못했을지라도.

11절과 12절은 안티오크스 3세 마그누스, 곧 '대왕'이 이끈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 왕이 이끄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사이에서 기원전 217년에 벌어진 라피아 전투의 승리와 그 여파를 밝힌다. 이 전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제국이 다투던 코일레-시리아(시리아 남부)와 팔레스타인 남부의 지배권을 둘러싼 투쟁 중에 일어났다. 라피아에서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의 승리로 그는 한동안 코일레-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남부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십칠 년 후인 기원전 200년에 일어난, 파니움 산 전투 또는 파네아스 전투로도 알려진 파니움 전투는 안티오크스 3세가 이끄는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이끄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사이의 전투였다.

31년 뒤인 기원전 167년에, 유대교의 종교 관행을 억압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려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도에 맞선 유대인의 봉기인 마카베오 반란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유대 지역의 작은 마을인 모데인에서 시작되었다.

문제의 사건은 유대인 인구에게 유대교 종교 의식의 금지와 예루살렘 성전 모독을 포함한 엄격한 헬레니즘 관행을 강요했던 악명 높은 그리스계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와 관련되어 있었다. 자신의 칙령을 집행하기 위해

안티오코스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 사절들을 보내 유대인 주민들이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모딘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관리 중 한 사람이 왕의 칙령을 집행하기 위해 도착하여, 유대인 주민들에게 이교 의식에 참여하고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나이 많은 유대인 제사장 마타티아스는 그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제사를 바치려고 나선 유대인과 그 셀레우코스 관리 둘 모두를 죽였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가족의 이러한 항거는 셀레우코스 통치에 맞선 마카베오 봉기의 시작을 알렸다.

맛다디아와 유다 마카비를 포함한 그의 다섯 아들은 산지로 피신하여 셀레우코스 군대에 맞서 게릴라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 반란은 마침내 세력과 지지를 확대해 갔고, 그 결과 셀레우코스군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승리로 이어졌다.

기원전 167년에 모데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유대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마카베오 반란의 시작과 더불어 외세의 지배에 맞서 종교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개시를 알렸다. 하누카 기간에 기념되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는 예루살렘 제2성전의 재봉헌은 기원전 164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23절의 "동맹"보다 3년 앞선 일이었다.

마카베오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되찾은 뒤, 이방의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본래의 종교적 용도로 회복시켰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메노라를 하루 동안만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성유 한 병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한 동시대의 역사적 증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유대인의 꾸며낸 이야기가 문헌에 나타나는 것도 6세기에 이르러서였다. 화잇 여사는 배도한 유대 교회를 가톨릭 교회와 비교하면서, 두 교회 모두 종교를 인간의 관습과 전통에 기초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한다. 교황권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온갖 조작된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치 기름이 여덟 날을 갔다는 그 이야기도 역사적 증거가 없다.

다니엘 11장 10절은 40절의 세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을 지목하는데, 나는 이전에 그것들을 냉전의 세 전쟁이자 또한 세 차례의 대리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 자매가 이 세 전쟁 가운데 두 번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냉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녀가 옳게 지적하였듯이 그 전쟁에는 막대한 죽음과 파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전 글들에서 "냉전"의 세 전투로 규정해 온 것은, 이 세 전투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역사 동안 발생하는 세 차례의 세계 대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세 전쟁은 대리전들이며,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도 규정되어 왔다.

나는 이 글들에서 앞으로 그 세 전쟁을, 열전을 냉전으로 지칭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40절의 세 전쟁" 혹은 대리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나의 정의에 따르면 40절의 세 전쟁에는 40절의 일부이기는 하나 1798년의 전쟁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1989년의 끝의 때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까지 이르는 세 전쟁만이 포함된다. 그 세 전쟁은 보다 정확하게는 대리전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수행되며, 40절의 역사에서 이는 가톨릭주의(북방 왕)와 공산주의(남방 왕) 사이의 전쟁을 나타낸다.

그 세 전투 가운데 첫 번째는 1989년에 가톨릭이 공산주의를 이긴 승리를 지목한다. 교황청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대리 전력과 연합하여 1989년에 소련을 휩쓸어 버렸기 때문이지만, 러시아, 즉 머리(또는 "요새")는 남아 있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금 가톨릭과 공산주의 사이의 전투로, 교황청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고, 과거 교황청의 대리 세력이었던 미국과 나머지 글로벌리스트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전쟁이다. 그 전쟁은 11절과 12절에서 묘사되어 있으며, 공산주의(러시아)가 가톨릭을 이길 것임을 밝힌다.

그 세 차례의 대리전 가운데 세 번째는 15절에 나타나며, 곧 파니움 전투이다. 그 전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남방 왕)과 셀레우코스 왕국(북방 왕) 사이에서 벌어졌다. 그 전투에서 가톨릭의 대리 군대는 다시 한 번 미국이다.

1989년의 첫 번째 전투에서, 미국의 공화당 뿔의 대리 군대는 교황권에 의해 소련의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으나, 그 머리(러시아)는 온전히 남겨 두었다. 두 번째 전투,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나치의 대리 군대가 러시아에 의해 패배한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교황권의 대리 군대인 미국이 다시 남방의 왕을 패배시킨다.

세 차례의 전투에는 '진리'의 서명이 찍혀 있으며, 첫째와 마지막 전투는 미국의 승리한 대리 군대에 의해 수행된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남방 왕의 머리가 온전히 남았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미국의 대리 군대가 남방 왕의 머리가 된다. 둘째 대리 군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교황권의 대리 군대이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나치의 대리 군대는 패배했으며, 앞으로도 패배할 것이다. 삼중 연합이 성취되는 16절 이전에 교황권은 모든 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킨다.

프톨레마이오스[푸틴]은 승리를 제대로 활용할 만큼의 분별이 없었다. 그가 승세를 몰아갔다면 아마 안티오코스의 왕국 전체의 지배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위협과 협박만을 늘어놓는 데 만족하고, 짐승 같은 정욕에 끊임없이 아무런 제어도 없이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 화친을 맺었다. 이리하여 적들을 정복하고도 자신의 약덕에 굴복했으며, 세울 수도 있었던 위대한 명성을 잊은 채 연회와 방탕에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성공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지만, 그것으로 강해지기는커녕 그 성공을 불명예스럽게 사용한 탓에 자기 신민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54쪽.

푸틴의 승리가 그의 종말을 뜻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남유다 왕 웃시아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마음도 군사적 승리로 높아졌고, 이어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하려다 나병에 걸려 즉시 권좌에서 물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푸틴의 승리는 남방의 왕(무신론의 왕)으로서 그의 종말의 시작을 알린다. 그의 종말은 40절의 예언적 남방의 왕(프랑스)의 시작으로 예표되었고, 이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지도부를 전복한 혁명을 가리켰다. 푸틴의 종말은 또한 소련의 종말로도 나타났는데, 그때 지도자(고르바초프)는 소련을 해체하고 즉시 유엔에서 직책을 맡았다. 유엔은 무신론의 말세적 글로벌리스트 상징, 곧 남방의 왕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푸틴의 승리 이후, 그는 워털루의 나폴레옹과 그 뒤따른 유배로도, 나병과 그 뒤의 유배를 겪은 웃시아 왕으로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술 취한 최후와 1989년 소련의 종말로도

예표된다.

파니움 전투는 기원전 200년에 일어났으며, 바로 그 해에 로마는 역사 속에 공개적으로 개입한다. 그들의 예언적 서사 속으로의 진입은 16절에 상징되어 있고 기원전 63년에 성취된 예루살렘 정복에 앞선 것이며, 그때 로마는 이집트의 어린 왕을 수호하는 자라고 공표하였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이 관련된 40절의 세 번째 전투에서 교황권은 다시 역사 속에 자신을 끼워 넣을 것이며, 러시아의 보호자인 체할 것이다. 바로 그 동일한 때에 예표에서 셀레우코스는 파니움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패배시켰으니, 이로써 40절의 첫 번째와 마지막 전투에서 교황권의 대리 군대인 미국이 "이집트"(남방 왕)를 패배시킨다는 점이 확인된다.

기원전 200년에, 두로의 음녀가 16절의 일요일 법에서 있게 될 삼중 연합에 앞서 자신의 음행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상징적으로 교황권을 보게 된다. 동시에 미국은 유엔에 우위를 점하여, 그리하여 열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일요일 법에서 성취되는 그 삼중 연합의 모든 역학 관계는 16절 이전에 이미 확정된다.

유엔으로 대표되는 용 세력의 정치 체제는 16절에서 자신의 정치 체제를 짐승에게 넘기기로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교황권이 용의 종교를 정복한다. 이교는 다시금 제거되어야 한다. 개신교는 레이건 집권기의 40절 첫 번째 전투에서 제거되었고,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의 시기에는 508년에 그랬던 것처럼 용의 종교 역시 가톨릭에 복속될 것이다. 교황권이 권좌에 오르는 데 대한 모든 종교적 저항을 제거하는 과정은 레이건 시절에 시작되어 트럼프 시절에 끝난다. 배도한 개신교의 가톨릭에 대한 저항은 40절의 첫 번째 전투에서 제거되었고, 심령주의의 저항은 40절의 마지막 전투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인간사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배도한 개신교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들 위에 종교적·정치적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파니움 전투는 16절의 일요일법 직전에 미국이 유엔을 제치고 우위를 점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예언의 확립된 법칙에 따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각각 고유한 예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예언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짐승(가톨릭교회)이 예언적으로 언제나 로마 도시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거짓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언제나 미국에 위치한다. 그러나 용의 경우에는, 용이 예언적으로 위치하는 곳의 특징이 항상 이동한다는 것이다. 용은 하늘에서 시작하여, 그다음 에덴동산으로 왔고, 마침내 용은 애굽에 위치하게 된다.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애굽의 왕 바로야, 그의 강들 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였도다. 에스겔 29:3.

예언에서 말하는 용의 위치는 이동한다. 요한의 때에는 그 보좌를 뜻하는 용의 자리가 버가모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가 사는 곳, 곧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을 안다.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그러하였다. 요한계시록 2:12, 13.

이교 로마의 관행은 그들이 관계를 맺게 된 모든 이교의 신들을 로마 시로 가져와 판테온
신전에 그들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의 성소의 처소가
헐렸으며"라고 기록한 이유이다. 이교 로마의 성소의 처소는 로마 시였고, 그것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330년에 무너뜨려졌으나, 로마 "안에" 있던 성소는 판테온
신전이였다. Pan-Theon은 "모든 신들의 신전"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사탄의 보좌의
위치를 버가모에서 판테온 신전으로 옮겼다. 화잇 자매는 이교 로마가 곧 용이라고 알려
준다.

"그러므로 용은 일차적으로는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The Great Controversy, 439.

이교 로마는 열 나라로 분열되었고,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동안 이집트의 무신론을
도입했을 때 남방 왕이 되었다. 1917년까지 용은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옮겨갔다. 10절은
1989년을 상징하며, 11절과 12절은 '경계선'의 전투(라피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타내고,
파니움 전투는 16절에서 교황권이 삼중 연합을 확보하면서 성취하는 세 번째 단계를
나타낸다. 그것은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파니움] 지경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21.